

서울 지역 베트남인의 거주지 선택에 관한 연구

유영 티 탄 난(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

1. 배경:

21 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활발해지며, 한국 사회 역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 부족과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더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한국 사회는 1980년대 말부터 노동 송출국에서 노동 유입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적의 외국인이 수십만 명 늘어났다.

한국은 지금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베트남인이 선호하는 주요 이주 국가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비율은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 261,581 명이고, 서울에는 27,032 명(10.3%)이었다. 그리고, 외국인 중 베트남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노동 협력, 유학, 국제결혼 등의 요인에서 비롯된다. 베트남인의 한국 이주 과정에서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를 정한다면, 1980년 한국 정부가 노동력 수입 제도를 도입한 시점이었다. 당시 한국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었으며, 열악한 산업환경에서 일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이후 노동 부족 문제가 완화되었으나, 동시에 국내 외국인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거주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늘어나는 외국인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한국의 이주 배경과 함께, 외국인 관련 사회, 경제, 노동, 거주, 복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착과 생활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연구가 많다. 그중 베트남인을 대상으로한 연구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주 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거주지역 선택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 진행이 안된 분야이다. 지금도 외국인 중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인의 거주 패턴, 거주지 특성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첫번째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목적은 서울에 베트남인 거주지 형성 과정에서 특정한 민족 커뮤니티의 유무가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베트남인의 거주지 선택은 공동체 기반보다는 경제적 조건, 생활편의, 교통 접근성 등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 번째 목적은 베트남 사람들이 현재 많이 분포하는 지역 경관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다. 그에 따라 베트남인이 선호하는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인의 거주지 선호와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외국인 전체가 아닌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거주지 분석의 선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향후 특정 국적 출신 외국인들의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연구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 통계 데이터 분석, 지리정보 시스템(GIS) 활용, 현장 조사와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어떠한 요인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하게 되는지를 외국인 전반적인 경향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의 주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조망하고자 한다.

둘째, 베트남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선호 관련 설문지를 조사하기 이전에 외국인 이주 공간 통계 자료를 GIS 로 분석하여 공간적인 패턴을 탐색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인이 주로 밀집하여 거주하는지, 혹은 분산되어 거주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이 한국인의 밀집 거주 지역과 중첩되는지 여부 또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인의 거주 패턴 및 거주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통계분석과 GIS 를 바탕으로한 계량 분석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도 진행하였다. 베트남인 밀집 거주지의 특성을 심층 조사할 수 있으며 베트남 식당, 베트남 마트 등의 시설을 조사하였다.

넷째, GIS 를 통해 분석한 결과와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서울에 있는 베트남인 거주지 선택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 25 개 구에 거주하는 104 명의 베트남인 대상으로 2025 년 1 월 12 일부터 2025 년 3 월 12 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우선 베트남인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다른 외국인들은 영등포구와 구로구 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에 비해 베트남인은 동대문구와 중구에 가장 많이 거주한다. 서울 지역 베트남인의 주거 분포의 전체 경향은 구 단위도 동 별 밀집 지역 단위도 강남 지역보다는 강북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

현장 조사는 신당 4 동, 군자동, 창신 2 동 등의 3 개의 동에서 진행되었으며, 베트남 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첫째, 베트남 인구가 많은 지역이 반드시 베트남 음식점, 상점, 마트 등 베트남인을 위한 시설이 많은 지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베트남인이 밀집한 지역은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주변에 학교, 대학교가 많다. 셋째, 베트남 식당, 마트, 가게 등이 많은 지역도 있기는 있는데 이들은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 위치한다.

설문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104 명의 베트남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거주지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거주지 선정 요소의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첫 번째

요소는 교통편리성이다. 두 번째는 낮은 주거비용이다. 세 번째 요소는 직장 및 학교 인접성이다. 네 번째 요소는 일자리이다. 다섯 번째는 편의시설의 접근성이다. 여섯 번째는 거주지의 안전과 치안이다.